

마르크스는 어떻게 마귀로 되었는가? (연재 1)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신명 (神明)으로



높이 떠받들린 마르크스는 일찍 기독교신도로 되었고 나중에 마귀사탄교에 가입했으며 그 자신도 사탄과 계약을 맺었다고 승인했다. 그후 마

르크스는 마귀가 하던 나쁜짓을 대폭적으로 했는바 노동자와 공산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망라한 전 인류가 지옥으로 떨어져라고 저주했다. “마르크스주의”는 바로 그가 사탄(마귀)교에 가입한후에 생겨난 것이다.

이외에도 매우 많은 공산주의신도에 대해 말한다면 레닌과 모택동이 “이는 어느곳에나 들어맞는 진리”라고 여겼던 “자본론”과 “공산당선언”은 마르크스본인이 말한것처럼 “더러운 책”이고 무산계급은 “미련한 놈”이며 “불량배”라고 여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다.

어떤 힘이 청년 마르크스를 마귀로 되게 했는가?

마르크스는 일찍 기독교신도였지만 졸업장

을 받은지 얼마 안되어 열정적인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는 논문에서 “훼멸”이란 단어를 6 번이나 중복했다. 이때로부터 “훼멸”은 마르크스의 별명으로 되었다. 마르크스를 놓고 말하면 훼멸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것이였다. 왜냐하면 그는 인류를 “쓰레기”로 여겼기때문이었따. 그 당시 마르크스가 쓴 시에는 《나는 하나님에게 복수할 것을 갈망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마르크스는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해친적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과 다투고 싸웠다.

마르크스와 그의 부친의 편지거래에서 우리는 청년시절 마르크스가 마귀로 변하게 된 원인을 알수 있다. 마르크스는 편지에서 《한층의 걸쭉데기를 벗기고 나의 모든 성스러운것들이 강요당하여 떠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령체가 진주할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흥폭함이 나를 점유하게 되어 나는 포악한 귀신령체를 평정시킬수 없을것입니다.》 1837년 3월 2일, 마르크스의 부친은 편지를 써서 마르크스에게 알려주었다. 《그때에 가서 네가 명성을 날리고 세속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너에게 명확히 알려주겠다. 그들은 나에게 기쁨을 줄수 없으며 마귀가 너의 마음을 전변시키지 못하면 난 기쁘겠다.》 일찍 기독교를 승인한 젊은 마르크스에 대해 그의 부친은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였는가? (다음호에 계속)

2011 년신운순회공연은 미국에서 서막을

지난 12월 17일 저녁, 신운뉴욕예술단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시 원스피얼가극원에서 2010년세계순회공연의 서막을 열었다. 연속 3일동안의 정채로운 공연은 중화신전문화를 펼쳐보였고 중국사람의 아름다움과 선량함을 체현하여 달라스시 명류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달라스 자심예술가 말타 불컬트는 《중국고대력사와 문명,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와 인물은 여기에서 부활되었고 모든것이 이처럼 신기하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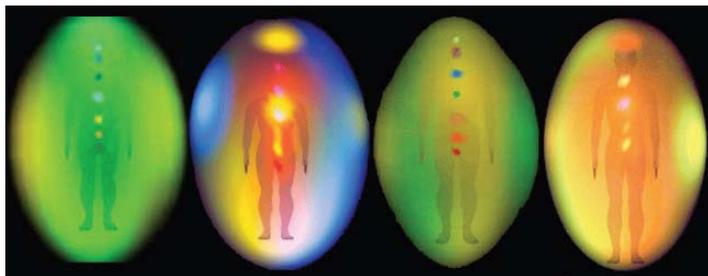
대만 자유광장에서 량지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12월 18일, 천여명 파룬궁학원들이 자유광장에서 “량을 불러

일으켜 박해를 정지시키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과 대시위행진을 거행하여 중공의 잔혹한 박해 사실을 폭로했고 박해를 정지시킬것을 호소했다.

신기한 인체의 발광 현상



킬리언 사진기로 찍은 인체 발광 현상

중국고전 신화소설 ‘봉신방(封神榜)’에서 나오는 신선은 머리위에 신기한 광환이 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일반인한테도 발광 현상을 발견했다.

1911년 한 영국의사가 물리치료 암실에서 환자를 치료할때 청색 염료를 칠한 유리판을 통해 뜻밖에 환자의 신체주위에 약 15mm 두께의 광환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색채는 놀랄만큼 아름다웠고 마치 가물가물한 운무와 같이 반복적으로 사라졌다 나타나 신비감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인체의 발광 현상이다.

1939년, 러시아 과학자 킬리언부부는 영국의사의 물리치료실 환경을 모방한다음 고주파 고압전기장을 가하여 인체가 발사하는 빛을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특수한 기술은 나중에 ‘킬리언 촬영술’이라 불렸다. 그들은 고주파 고압전기장에서 인체주위에 일정한 리듬으로 빛을 내는 광환과 광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한후에는 광환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체의 발광 사진중 유난히 밝은 빛을 발산하는 부위는 중국고대 침구도에서 표시된 741개의 혈위와 같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발산하는 빛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육안으로 분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이공능을 가진 사람 혹은 기공사가 발산하는 빛은 매우 강하고 공력이 높을수록 발산하는 빛도 더욱 밝으며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어두운 곳에서는 직접 볼수 있다. 대만 동삼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소녀 헤이저는 어릴때부터 다른 사람의 신체주위에서 발산하는 부동한 색깔의 광환을 볼수 있었으며 이것으로 상대방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낼수 있었다. 헤이저는 신체주위에서 발산하는 빛의 색깔이 녹색이나 황금색이면 신체가 건강하며, 갈색이면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체에서 빛을 내는 원인은 현대과학에 있어서는 아직 수수께끼이다. 중의는 인체경락은 인체에너지가 순환하는 통로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체의 발광현상은 일종 인체 에너지의 체현형식일 것이다.

중공의 박해로 사망된 주영

하남 신항시 파룬궁학원이고 전국인민대표이며 전국로동모범인 주영(朱颖)은 지난 2010년 9월 27일에 악경 위광뢰에게 납치되어 간수소에서 모진 박해를 받고 11월 30일 아침 4시경에 불행히 사망되었다.



7년 판결을 받은 변호사 왕영항

료녕성 간균 변호사 왕영항(王永航)은 여러차례 파룬궁학원을 위해 무죄변호했다는 리유로 2009년 7월 4일에 악경들에게 납치되어 구타당해 다리가 골절되어 중심병원에서 수술했다. 2009년 11월에 그는 불법적으로 7년 판결을 받고 심양제 1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연변박해소식

- 지난 9월 1일, 왕청현청교령진 파룬궁학원 김국민(金国民)은 춘양진에서 악경들에게 납치되어 지금 왕청현중안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12월 9일, 연길시파룬궁학원 왕방(王方)은 악경들에게 납치되었다.
- 연길시파룬궁학원 리호철은 2년판결을 받고 지금 장춘음마하로교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12월 22일, 파룬궁학원 김광일(金光日)은 간수소로 압송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12월 24일, 연길시파룬궁학원 조영록(趙永录)은 진상을 이야기하다가 악경들에게 납치되어 지금 연길시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선약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미래를 확보하기 바란다

